

지역 매 아리

정읍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1가정 당 최대 4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올해 다문화가족의 고향방문 기회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14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선정 심의를 거쳐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 36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0가정을 선정한 것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게는 1가정 당(4인 기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가 지원된다. 이들은 2월부터 10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고향에 다녀올 수 있다.

대상 자격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다.

이번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고향나들이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정 구성원들도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뿐 아니라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의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취약계층 자립 지원 28억원 투입... 일자리 제공

정읍시가 올해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에 적극 나섰다.

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구축과 자활 능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크게 민간위탁과 시 직접 수행으로 추진된다.

먼저, 민간위탁사업은 정읍지역자활센터와 신영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모두 23억원을 투입해 100여명의 인원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된다.

유진섭 시장은 "자활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자활참여자가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발대식과 교육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업 참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발대식과 함께 참여자 소양 교육을 가졌다. 사업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올해 사업 안내와 함께 참여자 선서,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참여예산 운영 대폭 혁신

부안군,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예산학교 9회 확대 운영

부안군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예산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위원회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야별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중 참여창고를 개설하고 읍면 연초방문 등 읍면행사에 찾아가는 방문접수 창고를 개설·운영했으며 군민정책토론회와 각종 위원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제안된 우수 제안에 대해 주민참

여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한 15억원과 연초방문 등 직접 찾아가서 예산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만큼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 및 이해, 주민참여예산 제안방법 실습, 타 시군 제안 사례 등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오는 3월부터 50여명씩 8회에 걸쳐 예산학교를 운

영하고 교육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심화과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참여자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예산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에 많이 참여한 읍면에는 예산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주민참여예산 및 예산학교 운영 확대 등 주민참여예산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드림스타트, '예비초등 부모교육' 운영

정읍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4일 예비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 학부모 24명을 대상으로 '2019 예비초등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과 학부모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정읍 보성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박향숙 교사가 초청강사로 나서 예비초등학교 학부모가 입학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의 이모저모와 각종 학교 행사, 아동의 올바른 생활습관 기르기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막막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덜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게 축하하며,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이 되길 응원한다"고 전하며, "자녀가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체계적인 식량산업발전 로드맵 마련

고창군, 종합계획 군민보고회 개최... 농업인 350여명 참석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위기의 농생명 산업을 살리기 위해 '쌀 수급조절·기타 작물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한 식량산업 미래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고창군은 이날 오후 고창읍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식량산업발전전략회의 등 지역 농업인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산업 종합계획 군민보고회'를 열었다.

'고창군 식량산업 종합계획(2019~2023년)'은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지역 식량산업분야(쌀, 보리, 밀, 옥수수, 콩, 팥 등)의 체계적 분석과 지원·투자를 통한 농업 비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전조장시설(DSC),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쌀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고, 교육과 가공, 유통을 통해 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발효물공공경영체 육성사업 등을 진행해 벼 이외의 식량작물 전환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조직화, 체계화, 규모화 된 체계를 구축해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계획면이 지난 15일 면 승격 36주년 기념식을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향후 발전 기원

부안 계획면, 면 승격 36주년 기념식 성료

부안군 계획면은 지난 15일 면 승격 36주년 기념식을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계획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계획면 발전을 기원했다.

또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관기관장들은 1960년대부터 이뤄진 대

단위 간척사업과 새만금사업 관련 사진 및 영상 등의 자료를 관람하며 고난을 이겨온 지난 36년을 되돌아보고 향수를 느껴보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일규 계획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계획면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간척지를 옥답으로 일궈 가장 밭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면이 됐다"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떡케이크를 함께

자르고 주민들과 다과회를 즐기면서 면 승격일을 다함께 축하했다.

김창조 계획면장은 "면민과 함께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준비했던 기념행사가 큰 호응을 얻어 매우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역사와 발전양상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체육회, 스포츠 통한 지역발전 꿈꾼다

올해 고창군체육회(회장 유기상)가 도민체전 성공개최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대대적인 시작한다.

고창군체육회는 지난 15일 군청회의실에서 체육회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 했다.

고창군 체육회는 올해 5월에 열리는 제56회 도민체전의 성공개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체육회는 대회개최 및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체육회는 이번 도민체전을 통

해 쌓은 스포츠 인맥과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대회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고창군은 탁구 등 모두 50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는 군에서 마이스산업육성사업에 선정하고,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는 등 '돈 되는 체육행사'를 목표로 뛰고 있다. 이밖에 전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레저스포츠 발굴을 위한 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고창군체육회 유기상 회장(고창군수)은 "30여일 남은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향후 도민체전의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뛰는 체육회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층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